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 논의

- 금일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추경 관련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의 추진방안을 논의
- 주요국 수출통제 현황 등 공급망 영향, 중소기업 상호관세 영향 등 점검

정부는 5.1(목)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고용부·금융위 등

금일 오전 관세피해·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잠정 합의되었다. 이를 통해 관세피해·수출기업에 총 25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금융지원 방안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 추진방안 예시(추경 정부안) >

- ①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6조원) 등 총 1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통합마케팅을 추진해 신속히 공급
- ② (무역보험공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4조원의 무역보험 특별공급
→ 5월 중 기업 신청 개시, 매달 집행 점검
조선 RG·방산은 수출·수주 계약 일정에 따라 적기 지원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자금 0.7조원 공급
→ 추경 통과 직후 바로 사업공고, 선제적으로 애로기업 발굴해 자금신청* 안내
*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와 연계된 중기부 애로신고센터, 코트라 관세대응 119 등 활용
- ④ (신·기보) 위기기업 특례보증 공급(기보 1.2조원, 신보 3조원)
→ 추경 통과 후 상반기부터 특례보증 상시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지난 2차회의(4.17) 시 관세애로 통합 대응·지원을 위해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는 현장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기업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피해기업이 적기에 정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적인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을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출통제 전개 양상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품목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리스크 점검 및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서 조만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1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